

“나주에너지밸리 핵융합 기술연구 중심지로 도약”

전남도, 인공태양 상용화 포럼

핵융합에너지 전문가 대거 참여 관련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협약 공동사업기획·정책지원 등 협력

전남도가 상용화된 인공태양의 첫 불꽃을 에너지수도 나주에서 점화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를 본격화한다.

전남도는 핵융합에너지 최고 전문가들과 ‘인공태양 상용화’ 방안 모색을 위해 ‘2023 전남도 인공태양 포럼’을 전날 나주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기술 연구원에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전남도, 나주시, 한국에너지공단(켄텍), 국회 1.5도 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포럼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박창환 전

남도 정부부지사, 윤의준 켄텍 총장, 유석재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김강식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장, 황용석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홍봉근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 교수, 노승정 한국가속기·플라즈마연구협회장, 최용국 전남과학기술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4차 국가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켄텍에 구축 중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바탕으로 전남도가 핵융합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 연구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핵융합에너지는 1억도 이상의 고온 플라즈마 상태에서 수소 분자가 융합해 헬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태양 에너지의 발생과 원리와 같아 ‘인공태양’으로도 불린다.

핵융합 연료인 수소는 바다에 무한하게 있고, 에너지 전환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꿈의 에너지’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도 35개국이 국제공동연구로 추진하는 약 20조원 규모의 국제핵융합 실험로(ITER)에 참여 중이다.

이 같은 연구 참여는 세계적으로 구글, MS 등 빅테크기업이 투자한 민간 스타트업이 43개사로 늘어나는 등 인공태양 상용화에 대한 기술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날 포럼은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을 지낸 이경수 충남대 특임교수 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자문위원의 ‘탄소 중립을 위한 핵융합에너지 상용화’ 기조 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또 윤시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부원장은 ‘핵융합에너지 실증을 위한 국내

외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 홍봉근 전북대 양자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핵융합에너지 개발 추진 현황’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노승정 한국가속기·플라즈마연구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선 인공태양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과 산업화 방향, 전남도의 잠재력과 추진 과제를 활발하게 논의했다.

토론에서 황용석 서울대 교수는 ‘국가적 연구개발과 병행한 핵융합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김기만 켄텍 교수는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현황’을, 오병기 전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전남도의 인공태양 연구개발·실증을 위한 적합성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박창환 정부부지사는 “2050년대가 되면 인공태양은 글로벌 에너지산업에서 기

저발전원 역할을 할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나주 중심의 에너지신산업 연구 기반시설을 더욱 고도화해 전남도에서 상용화된 인공태양의 첫 불꽃이 점화되게 하겠다”고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전남도, 나주시, 켄텍이 국제핵융합실험로 건설 등 핵융합에너지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다원시스, ㈜비츠로테크, K.A.T ㈜ 등 7개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나주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한 초전도 도체 등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인력 양성 등이다. 앞으로 협약기업과 기관은 공동 사업기획 및 중장기 정책지원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광주시, 제5회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

광주시는 13일 ‘제5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정책평가’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전국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좋은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선순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평가는 정책기반 정비, 지원 수준, 정책성과, 협의체 등 4개 분야 17개

지표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중간지원조직 구축·운영 △제2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지역사회문제 해결 매칭데이 운영 △사회적경제 전문인재 양성 △민관거버넌스 협의체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경제기업수가 101.3개소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다. 또 2021년말 기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9676만원으로 전국 5위를 기록,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병하 기자**

“남도의병 선양사업 활성화 제도 마련을”

지난 2020년 전남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남도의병 선양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남도의병의날’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남도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현범)은 13일 JN1 이슈리포트 ‘남도의병 선양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간해 전국에 제정된 의병 선양(기념)사업 관련 조례 11건을 검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남도의병 선양사업의 지향점과 조례 세부사업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남도의병 선양사업은 ‘남도의병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광주전남연구원, 2020)’ 이후, 역사박물관 건립 설계, 전시유물 조사 등 다양한 연구구역과 ‘2023 남도정신문

화 계승·확산 사업(전남도·한국학호남진흥원)’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도의병 선양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특화사업 발굴, 국비 확보 및 타지역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남도의병 선양자문단과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남도의병 선양사업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사업 발굴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전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병박물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의병(장) 인물 연구, 역사연표 및 의병활동 지도 제작과 같은 기초연구 수행뿐만 아니라, 의병활동 VR체험, 대화형 AI ‘남도의병장과의 대화’ 등 AI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16~17일 눈 예보… 광주시, 제설작업 총력

광주시는 오는 16일부터 영하권 추위가 시작되고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설에 총력 대응한다.

13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14~15일에는 기온이 영상을 웃돌며 눈 대신 비가 내리고, 16~17일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고 다음주까지 계속 영하권이 지속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재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폭설 경험 등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지난날 22일에는 남구 대촌동에

서 폭설대응 유관기관 훈련을 시행, 광주시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대비 태세를 종합 점검했다.

또 강설 전 취약지역 등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기 위해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 대설특보가 발효되면 광주시종합건설본부와 5개 자치구에서 즉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운영하고 마을에 민간장비를 임대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소형제설장비를 각 동별로 배치해 이면도로, 응달진 곳, 경사로를 제설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2023 광주시정 보도사진전 개막

‘2023 광주시정 보도사진전’이 13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가운데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도사진전은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왼쪽부터 박병규 광산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 윤영덕 국회의원, 문인 북구청장, 임택 동구청장, 박현미 서구 부구청장. **나건호 기자**

광주시, 지역경제 선도 명품강소기업 35곳 선정

매출액 50억원 이상 제조업 기업 맞춤형 지원 통해 글로벌기업 육성

광주시가 지역경제를 이끌 ‘제12기 명품강소기업’ 35개사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금호기공, 광주알.엔.에이 주식회사 등 명품강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품강소기업 35개사에게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대상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제조업(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5년간 연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지난 10월27일까지 공모를 통해 재지정 신청 14개사와 신규 신청 25개사 등 39개사에 대한 서류심사, 발표·현장평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재지정 13개사와 신규지정 22개사 등 최종 35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명품강소기업은 지정기간 3년간 연구개발(R&D)과제 기획, 신기술 사업화, 공정개선 및 협업 지원 등 기업 성장 목표와 성장수준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지원받는다.

또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청,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지원 유관기관의 협업을 지원사업 연계, 기업 애로사항 공동해결, 경영, 기술, 자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명품강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튼튼한 뿌리가 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끌수 있는 지역혁신 리더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강화

‘난자 냉동’ 등 신규 추진

전남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확대·강화한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주요 지원사업은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등이다.

신규로 ‘난자 냉동 지원사업’과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

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지만 정부형 난임 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원 횟수(신선배아 9회·동결배아 7회·인공수정 5회)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를 위해 최대 150만원을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올해 600명에서 내년엔 650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한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전남 한의사 협회와 함께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4개월간 1인당 180만원까지 지원한

다. 올해 150명에서 내년엔 180명으로 지원 인원을 늘렸다.

2024년 신규 시범사업인 ‘냉동난자 지원’ 사업은 가임력 보전을 위해 난자 냉동을 원하는 여성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 사업을 통해 냉동한 난자를 이용해 임신 시술을 할 때 최대 200만원씩 지원한다.

전남도는 결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높아져 난임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황지 기자**